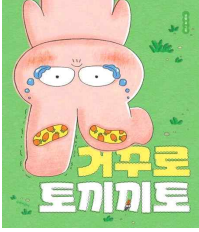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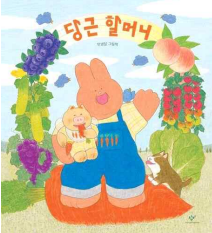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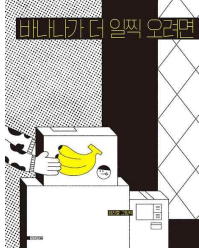




2025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후보도서(20권)

□ 유아 그림책(5권) ※ 주제 키워드: 다음

1	거꾸로 토끼끼토/보람/길벗어린이
	<p>새 신발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두 귀로 거꾸로 걷기 시작한 영똥한 토끼끼토의 이야기.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끼토는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토끼 친구를 만나게 된다.</p>
2	당근 할머니/안녕달/창비
	<p>돼지 손주가 시골에 사는 토끼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평화롭고 유쾌한 하루를 그려낸 그림책. 할머니의 넉넉한 손길로 크고 튼튼하게 자란 동식물과 활기찬 오일장의 풍경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다.</p>
3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정진호/사계절
	<p>새벽 배송으로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는 택배 기사, 주유소 직원, 철로 정비사 등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찍' 움직일수록 더욱 빨라진다. '우리를 일찍 움직이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p>
4	숲속 재봉사의 옷장/최향랑/창비
	<p>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열리는 숲속 재봉사의 신비로운 옷장. 동물들이 식물 옷을 입고 숲에서 함께 놀며 우정을 쌓아 가는 모습과 꽃잎과 씨앗으로 만든 옷으로 사계절의 매력을 담아냈다.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콜라주 그림으로 식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한다.</p>
5	이야기 가게/자현/나무의말
	<p>원하는 이야기를 바로 책으로 만들어 주는 북 키오스크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문할까? 이야기 가게를 찾은 아이는 북 키오스크가 안내하는 대로 이야기의 종류와 소재를 고른 뒤에 장소와 주인공을 선택한다. 책 속 이야기는 두 갈래로만 흐르지만 처음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특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그림책이다.</p>

□ 어린이 도서(5권) ※ 주제 키워드: 다음

<p>1</p>	<p>들개왕/곽영미/책읽는곰</p>
	<p>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안락한 삶에 안주하는 반려견이 아닌, 낮설고 거친 야생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들개의 눈부신 여장 이야기. 나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p>
<p>2</p>	<p>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현단/이루리북스</p>
	<p>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와 어떻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할까? 누구에게나 장애는 존중받아야 할 개성일 뿐임을 일깨워주는 그림책. 아이들과 놀이 속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존재가 무지개 같은 다양함으로 빛나고 있으며,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p>
<p>3</p>	<p>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김나무/키다리</p>
	<p>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부당함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소신있게 표현하는 어린이의 목소리가 가득 찬 작품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p>
<p>4</p>	<p>선아의 기분은 록속속/박진경/비룡소</p>
	<p>학교와 친구, 가정의 일상 그리고 자연과 동물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42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집으로 날카로운 통찰과 유머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p>
<p>5</p>	<p>울지 않는 달/이지은/창비</p>
	<p>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똑 떨어진 달의 이야기로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대지 위에서 달이 겪어 내는 삶을 따스하게 들려주며, 달과 아이, 늑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관계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다.</p>

□ 청소년 도서(5권) ※ 주제 키워드 : 일상의 안녕

<p>1</p>	<p>달리는 강하다/김청굴/래빗홀</p>
	<p>노인들이 좀비로 변해 봉쇄된 도시에서 할머니와 살아가는 소녀 강하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자세와 재난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연대와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다.</p>
<p>2</p>	<p>꿈을 걷는 소녀/백혜영/밝은미래</p>
	<p>꿈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소녀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겪은 엄마의 꿈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 나가며, 자신을 비롯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사춘기 소녀의 가족과 친구에 관한 여러 고민과 갈등을 발랄하게 다루면서도 꿈의 파편들을 단 서로 엄마의 오래된 상처에 추리 소설처럼 하나씩 다가가는 구조가 흡입력을 가진다.</p>
<p>3</p>	<p>쉬프팅/범유진/다산책방</p>
	<p>폭력에 노출된 남녀 청소년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던 학교가 사라진 평행 세계로 떨어지는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학교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판타지적 요소를 갖추어 재미와 몰입을 주고,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p>
<p>4</p>	<p>너를 위한 B컷/이금이/문학동네</p>
	<p>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는 선우는 친구들이 노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밀한 어떤 것을 알게 된다. 고민을 거듭하던 선우는 불의에 손쉽게 눈감아 버렸던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용기를 낸다. 한 사람의 진실, 삶의 진실은 어쩌면 자랑스레 내보인 A컷이 아니라 오히려 숨긴 B컷 속에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소재와 확장성 있는 주제로 여운이 많은 소설이다.</p>
<p>5</p>	<p>소녀 저격수/한정영/미래인</p>
	<p>배우지도 않았는데 총을 쏘고, 포악한 늑대와 맞서 싸우기도 하는 설아는 문득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한다. 일본군 방역부대 소속의 장교가 설아를 쫓으면서 궁금증은 증폭되고. 열여섯의 산골 소녀 설아가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헤쳐 나가며 소녀 저격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긴장감 있게 펼쳐는 소설이다.</p>

□ 성인도서(5권) ※ 주제 키워드 : 차별 너머의 풍경

<p>1</p>	<p>어떤 어른/김소영/사계절</p>
	<p>‘어린이라는 세계’를 통해 어린이의 세계를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봤던 저자가 이번에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써 내려간 에세이다. 다양한 공간에서 만난 어른과 어린이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는 어른을 보고 자라는 미래임을 이야기하며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애써달라고 말한다.</p>
<p>2</p>	<p>증명과 변명/안희제/다다서재</p>
	<p>한국 청년 남성의 삶에서 우울과 강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증명해야 살아남고 실패해도 변명할 수 없는 사회, ‘남성 청년’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온한 이름이다. 저자는 기존의 남성을 ‘한국 남성 청년’의 전형으로 빛는 대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늘날 청년 남성의 고립과 외면에서 벗어나 불편한 대화라도 이어가고자 한다.</p>
<p>3</p>	<p>축복을 비는 마음/김혜진/문학과지성사</p>
	<p>이 책은 ‘집’에 관한 여덟 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으로 작가의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이 곳곳에 녹아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상품으로서의 집이 주거로서의 집을 압도하는 한국 사회에서, 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은 계급, 젠더, 지역, 세대를 비롯한 충돌을 야기한다.</p>
<p>4</p>	<p>두 사람의 인터내셔널/김기태/문학동네</p>
	<p>오늘날은 흔히 ‘역사 이후’나 ‘탈이념의 시대’로 불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념을 품고 역사를 형성하며 삶을 꾸려나간다. 이 소설집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를 새로운 감각과 시선으로 발굴하여, 삶과 역사가 어떻게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얽히는지 문학적이고도 사회학적인 스케치를 제공한다.</p>
<p>5</p>	<p>대온실 수리보고서/김금희/창비</p>
	<p>삶과 역사와 건물은 그것을 짓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짓기 위해 묻어둔 것들, 지어진 이후 마모된 것들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 장편 소설은 창경궁 대온실을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의 역사에서도 산재한 ‘반드시 수리해야 하지만 묻어둔 것들’을 직시하고 바로잡길 사려 깊게 요청한다.</p>